

2026년 1월 중고차수출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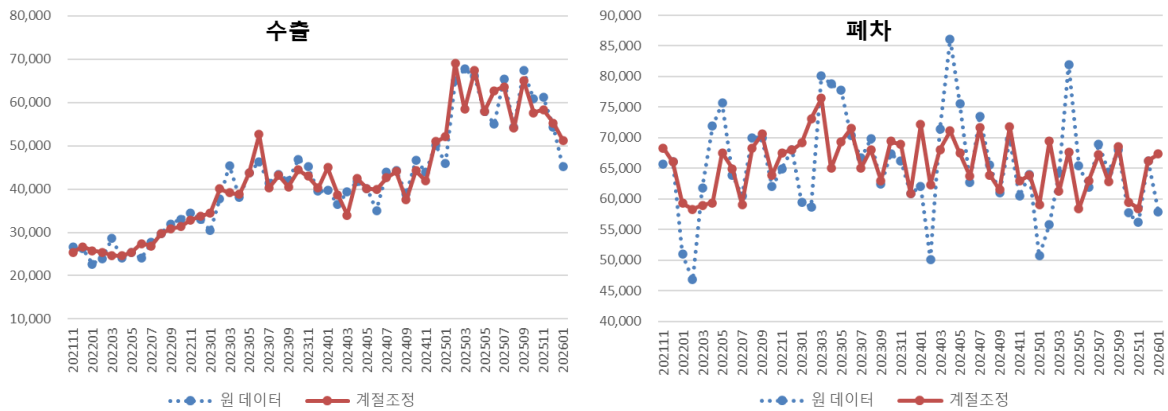
(사)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
Korea Auto Auction Association

2026년 1월 한국 수출 및 폐차 시장 동향

말소 차량은 크게 수출용 말소와 폐차용 말소로 구분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용도상 수출용 말소로 구분된 차량 외에는, 대폐차, 도난, 멸실, 연구시험, 편취, 횡령, 천재지변, 면허취소, 운행정지, 부정등록 등 다양한 사유가 있으나 본 보고서에는 편의상 "수출예정"으로 말소한 차량을 수출로 정의하고 나머지는 폐차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출예정으로 말소 이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수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은 폐차로 전환되거나 신규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로 인해 실제 수출 시점은 본 분석 자료에 나타난 수출월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월별 정확한 수출 물량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HS 코드 기반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수의 기관이 이를 활용해 공식 수출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본 분석은 이러한 무역협회 통계를 대체하기보다는, 수출 이전 단계에서의 구조적 정보를 보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향후 수출 동향과 경쟁력 분석에 추가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림 1> 월별 수출/폐차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그림 1>은 월별 중고차 수출 대수와 폐차 대수를 함께 제시한다. 2025년 전반에 걸쳐 강한 증가세를 보이던 중고차 수출은 최근 들어 다소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한 모습이다. 1월이 계절적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출 등록 대수가 전월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며 (-16.8%) 2024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는 점은 향후 추이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조정이 일시적인 조정 이후의 재상승 국면인지, 혹은 추세적 하락으로의 전환 인지는 향후 2~3개월간의 흐름을 통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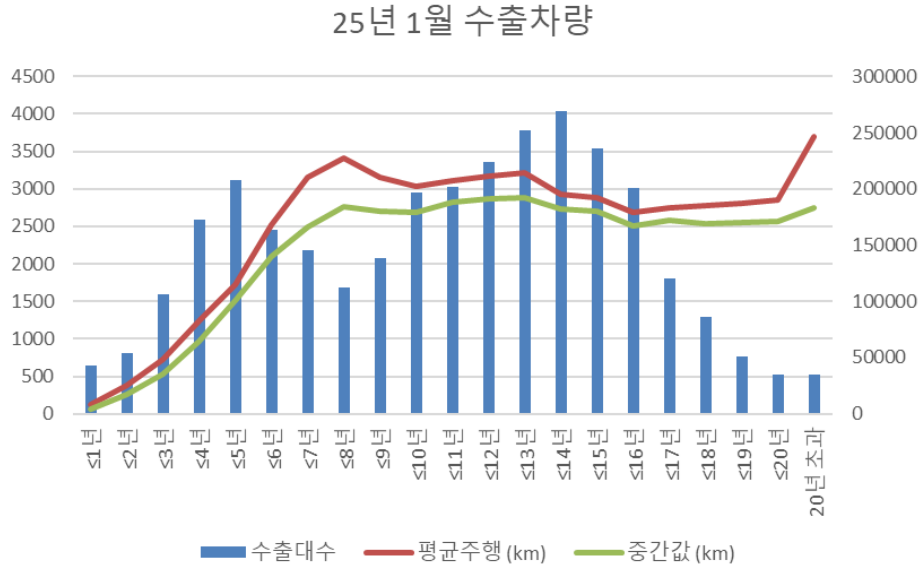
주식시장의 기술적 분석 기법인 엘리엇 파동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2~3월 중 수출 등록 대수가 유의미하게 반등할 경우 수출 거래가 한 단계 상향된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2026년은 전반적으로 조정 국면이 지속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중고차 수출은 글로벌 수요 여건, 환율, 물류 여건,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외생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순수한 기술적 변동 분석 기법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수출 흐름은 향후 시장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있어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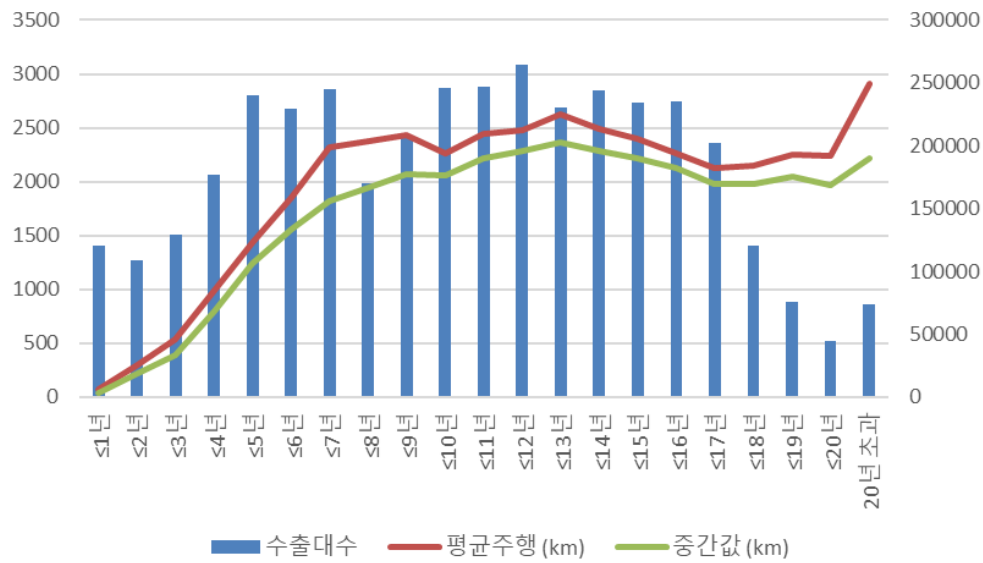
폐차시장은 전반적으로 65,000대 수준에서 안정적인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전월대비 12.6% 폐차 등록대수가 감소하였으나, 계절 조정 대수 기준으로는 오히려 1.7% 증가했다는 점이다. 과거 폐차급 차량이 수출로 이어지던 물량 중 일부가 폐차로 전이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부분은 좀 더 데이터가 축적된 이후 상세 분석 예정이다.

1. 1월 수출 시장 상세 분석

<그림 2> 연식별 수출 대수 및 주행거리



26년 1월 수출차량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그림 2>는 2025년 1월과 2026년 1월을 비교해 수출 차량의 연식 분포와 주행거리 패턴을 제시한다. 두 시점 모두에서 수출 차량의 주행거리 패턴은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연식 분포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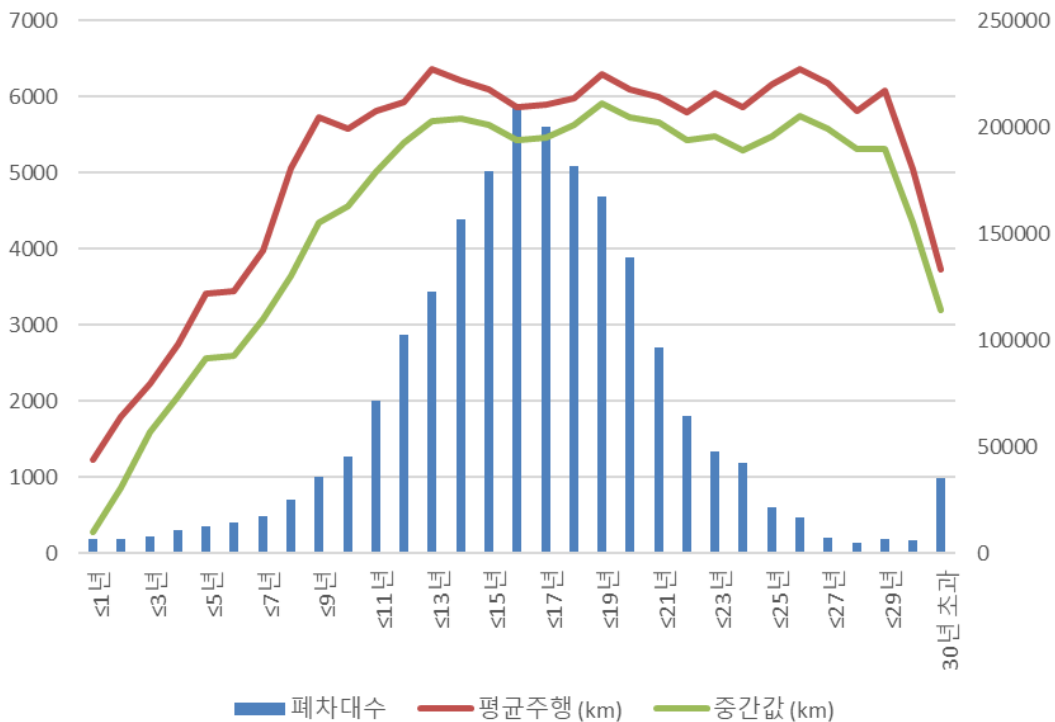
2025년 1월에는 이봉(bimodal) 형태가 명확한 반면, 2026년 1월에는 두 봉우리 사이의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며 4년차부터 17년차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수출 시장이 확대되면서 신규 국가와 수요처가 다변화되고, 그 결과 수출 대상 차량의 연식 스펙트럼이 한층 넓어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1월 폐차 등록 상세 분석

<그림 3>은 폐차 차량의 연식별 분포와 주행거리 패턴을 보여준다. 연식 분포는 단일 봉우리를 형성하며 좌우 대칭에 가까운 정규분포 형태를 보였다. 폐차는 주로 15~19년차 차량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연식과 무관하게 평균 약 22만 km 내외의 주행거리를 기록한 차량일수록 폐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차는 자동차가 생산·판매된 이후 여러 차례의 중고차 거래를 거쳐 도달하는 생애주기의 최종 단계라는 점에서, 차량 라이프사이클 전반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소는 신차-중고차-폐차로 이어지는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패턴을 정형화함으로써 경매 시장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석적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3> 연식별 폐차대수 및 주행거리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3. 요약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말소 차량을 수출용과 폐차용으로 구분하여 월별 추이와 1월 상세 데이터를 중심으로 중고차 수출 및 폐차 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실제 수출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출예정 말소'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공식 무역 통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선행적 시장 변화를 보완적으로 조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중고차 수출은 2025년 전반의 강한 증가세 이후 최근 들어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한 모습이 관찰된다. 1월 수출 등록 대수는 계절적 비수기를 감안하더라도 전월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며 2024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는 단기 조정 이후 재차 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도 동시에 시사한다. 향후 2~3개월간의 흐름은 수출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차량의 속성 변화 역시 주목할 만하다. 2026년 1월 수출 차량의 연식 분포는 기존의 이봉 구조에서 벗어나 중간 연식대가 메워지며 보다 넓은 스펙트럼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주행거리 패턴은 큰 변화 없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수출 시장이 특정 연식대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별·수요처별로 보다 다양한 차량을 흡수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출 경쟁력이 단순히 저연식·저주행 차량에 국한되지 않고, 차량 활용도와 가격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폐차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식과 주행거리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한 특성을 보인다. 폐차는 주로 15~19년차 차량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평균 약 22만 km 내외의 주행거리를 기록한 차량에서 폐차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폐차가 가격이나 단기 수급 요인보다는 차량의 물리적 수명과 사용 누적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임을 시사한다. 최근 일부 폐차급 물량이 수출로 전이되던 흐름이 둔화되며 다시 폐차로 흡수되고 있을 가능성 또한 관찰되며, 이는 향후 수출과 폐차 시장 간의 경계가 재조정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종합하면, 중고차 수출과 폐차 시장은 각각 확장과 안정이라는 상이한 국면에 놓여 있으나, 두 시장은 차량 생애주기 상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수출 대상 차량의 연식 스펙트럼 확대는 경매 시장의 출품 전략과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폐차 기준의 구조적 안정성은 중장기적인 차량 가치 하단을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향후에는 신차-중고차-수출-폐차로 이어지는 흐름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매 출품 전략, 수출 타이밍 판단, 그리고 시장 리스크 관리에 보다 정교한 의사결정 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 산하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

연구소장

조성봉

부소장
(운영총괄)

김원태

수석
객원연구원

고석빈

이 분석 보고서 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 상담은 불가하며 홈페이지에 [문의하기]
또는 이메일 info@aaa-korea.com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